

# 구별된 레위인의 사명

민수기 5:1~10

## 【인도자를 위한 예화】

2012년 한 TV프로그램에서 서른세 살의 한 남성이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 한 가닥의 줄을 연결하고 긴 장대 하나만 들고 균형을 잡으며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는 폭이 약 200미터, 높이가 약 4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폭포입니다. 떨어지는 폭포수로 인해 발생하는 자욱한 안개로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유속의 속도로 강풍이 불어 휘청거리는 줄은 더없이 위태롭기만 해 보였습니다. 그 남성에게 긴 막대기는 중심을 잡아 주는 도구였고, 폭이 5센티미터에 불과한 한 가닥 줄은 죽음의 줄인 동시에 생명줄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그 남성의 인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삶과 죽음의 기로 위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막대기에 의지해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삶은 생명줄을 걷는 길이 되겠지만 불순종의 막대기를 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상고해야 합니다. 그 남성이 폭포 위에 걸쳐진 한 가닥의 길 위를 집중하며 조심스레 걸었듯이 믿음의 중심을 잘 잡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나는 믿음의 중심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 【배경 이해하기】

이스라엘 진영 배치, 행군 순서, 레위 지파의 직무 등 앞선 본문들을 통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민수기 5장부터는 모세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존속을 위한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것을 구분함(1~4절)을 시작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관점의 지침이 주어집니다(5~10절).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 모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보내집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부정함이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외적 경건과 내적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증거와 증인이 없다면 밝혀지지 않을 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부정함에 대한 처리 규정(5~10절)을 통해 안과 밖의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요?(2~3절)

나병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될 때는 바로 거룩함을 상실할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결은 신체적 오염, 도덕적 오염, 우상 숭배 등의 제의적 오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사회에서 나병환자나 생명의 상징인 피를 쏟아 내는 유출병 환자, 죽은 사람의 몸과 접촉한 사람들 등이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져야 했습니다(2~3절). 이는 병의 전염이나 차별, 배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부정함에 대한 제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정함, 죄악과의 완

전한 분리,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주의하는 것은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부정함입니다. 부정함은 사람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 도덕적인 부패에서 나옵니다(5~10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신속히 이행합니다(4절).

## 적용과 나눔 I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로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분리하고 내몰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정에서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자 은혜의 방편입니다. 생명과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와 공동체는 이 생명을 받을 만한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이 있다면 권면과 회개를 통해 신속히 이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은 영적인 부정함과 윤리적인 부정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룩함을 훼손하게 하는 부정함의 것들을 분별하고 진영 밖에 내버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 관찰과 묵상 II

**이웃에게 지은 죄는 결국 누구를 거역한 죄인가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6~7절)**

사람에게 지은 죄는 곧 여호와를 거역한 것으로 죄를 자복하고 짓값을 갚으며, 오분의 일을 더해 돌려줘야 합니다.

본문은 동일 규정이 있는 레위기 6:1~7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죄에 대한 자복(7절)입니다. 6절의 '여호와께 거역함으로'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여호와를 배신하면', '여호와의 믿음을 깨트리면' 등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법정 용어로, '배신했다'는 의미는 법정에 서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잘못할 경우 보상에 관한 규례를 다루며, 이웃에게 끼친 죄가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로 지칭됩니다(8절).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죄는 육체적 부정함과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을 훼손시킵니다. 죄를 지으면 고백하고 보상하며(7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8~9절)으로 평화를 회복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뤄야 합니다.

## 적용과 나눔 II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좋을지 나누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적, 영적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와 공동체가 동일하게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부정으로 인해 부정하다 판결된 사람들은 치유되기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했던 것(1~3절)처럼 영적으로 부정함의 사람 또한 그에 따른 치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5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가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분열과 정결함의 훼손에 대해 회복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4절)과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